

우정관계 질투와 심리사회적 부적응과의 관계 -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질투측정방법을 비교하여 -

배재현*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우정관계 질투의 측정방법(자기보고와 또래보고)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질투수준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 질투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차이가 나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970명(남학생 654, 여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우정관계 질투 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질투정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료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자기보고 측정방법과 또래보고 측정방법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의 정도가 매우 낮으므로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성과 학년에 따른 질투수준(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질투수준이 더욱 높았고, 중3이 중1보다, 중1이 고2보다 자기보고 질투수준이 높았으며, 중1이 중3/고2보다 또래보고 질투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기보고 질투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내면화문제(우울·불안), 외현화문제(공격행동)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중1의 경우에만, 또래보고 질투수준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외현화문제(공격행동)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질투를 연구함에 있어서 어떠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년에 따른 차이를 밝힘으로써 질투관리를 위한 개입시기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기보고 질투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부적응인 우울·불안과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이므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우정관계 질투상황에 대한 대처전략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우정관계 질투, 심리사회적 부적응

질투는 인지, 정서, 행동과 같은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단일의 정서로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White와 Mullen(1989)은 질투가 유발되는 사회적 삼자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

* 교신저자: 배재현,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대구 북구 산격동 1370번지

* E-mail: cinespace@dreamwiz.com

하고 있다. 첫 번째 관계인 질투를 보이는 개인 (the jealous individual)과 소중한 사람(the beloved)과의 관계인 일차적 관계, 두 번째 관계인 소중한 사람과 경쟁자(the rival)와의 관계인 이차적 관계, 세 번째 관계는 질투를 보이는 개인과 경쟁자와의 관계인 적의적 관계를 포함해야만 질투가 생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질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상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항상 삼자간 관계속에서 발생하더라도 단순히 세 명의 사람이 함께 관련되어 있다고 질투가 유발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상황은 질투를 보이는 개인과 소중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이어야 하는데, 이 관계는 반드시 애정관계일 필요는 없지만 애정관계에 놓여있을 때 보다 강한 질투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쟁자에 의해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위협받거나 상실되었을 때 질투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 상황은 질투가 연인관계가 아닌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애정상실의 관점에서만 질투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Volling, McElwain, & Miller, 2002). 따라서 우정관계 질투는 2인의 우정관계에 새로운 제삼자가 개입하여 삼자관계를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2인 우정관계는 제3자로 인해 위협받거나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할 때 질투가 생겨나고, 분노, 공포, 애정, 자존심, 경쟁의식 등이 결합된 정서적 상태 혹은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배재현, 2006).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질투가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정관계상황에 대한 질투연구는 최근의 일이다. 2000년을 넘어서면서 아동후기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정관계 질투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Biggs & Parker, 2001; Parker, Walker, Low & Gamm, 2005; Roth, 2002; Walker & Parker, 2001), 가상의 상황이 아닌 실제 경험한

질투에 대한 연구(Lucas, 2004)도 이루어졌으며,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형제관계에서의 질투가 아닌 또래관계에서의 질투가 사회적 적응과 관계됨을 밝히는 연구(Parker & Walker, 2003)가 이루어졌다. 이는 과거의 많은 질투연구들과 대중매체들이 연인관계에서의 질투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온 것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연인관계상황에서의 질투만을 연구하는 편향성은 질투가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친밀한 관계를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되고, 질투의 정의를 연인관계 질투와 동의어로 인식하게 만들며, 질투가 단지 연인관계에서만 존재하는 듯한 생각을 갖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배재현, 2006). 따라서 부족한 연구영역인 우정관계에서의 질투를 연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잘못된 인식들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인관계 질투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를 우정관계 상황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Parker, Low와 Wargo(1999)는 우정관계 질투를 측정하고자 우정관계 질투척도(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 FJQ)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신의 질투정도를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으로서, 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가설적인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여 이때의 정서적 반응을 상상한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우정관계 질투연구(Biggs & Parker, 2001; Parker et al., 2005; Roth, 2002; Walker & Parker, 2001)는 이 척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Quigley와 Tedeschi(1996)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가 사회적 요구에 대한 편견에 취약하여, 피험자의 응답이 실제 질투를 반영한 것인지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 정당화를 반영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배재현과 최보가(2006)도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사용할 경우 질

투가 유발되는 상황을 우정관계 상실과 같은 극단적인 스트레스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실제 질투강도보다 낮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최근에 사용하는 방법이 또래보고식 측정방법이다. Parker, Walker와 Gamm(2002)이 사용한 또래보고(Peer-Reported) 질투평판 척도는 일반적인 질투와 관련된 4문항을 제시하고, 이 문항과 관련성이 높거나 유사한 행동을 자주 표현하는 또래를 무제한으로 지명하게 하는 사회측정적 행동평가법이다. 학급의 친한 친구로부터 받은 평판과 비친구로부터 받은 평판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확인하는 사회측정적 지위를 측정한다. 사회측정적 지위에서 친한 친구가 한명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또래보고 질투평판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친한 친구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또래로부터 정확한 질투평판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한 연구가 Walker와 Parker(2001)에 의해 이루어졌다. Walker와 Parker(2001)는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평가간에 보통의 상관보다 낮은 상관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측정방법간의 직접적인 비교없이, 자기보고 질투점수가 높다고 해서 또래보고 질투평판 점수도 높을 것으로 예측해서는 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Walker와 Parker(2001)는 두 방법의 점수를 가지고 4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에 따른 차이를 밝혔다. 첫 번째 집단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로 질투가 없는 집단이라 명명하였고, 두 번째 집단은 자기보고 점수는 높으나 또래보고 점수는 낮은 경우로 자기 질투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자기보고 점수는 낮고 또래보고 점수가 높은 경우로 또래 질투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마지막 집단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점수가 모두 높은 경우로 일치된 질투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이 4개 집단에 따른 자기가치감과 또래거부민감성을 알아본 결과(Walker & Parker, 2001), 일치된 질투집단이 다른 세 집단들에 비해 자기가치감이 더 낮았고, 친구에 의한 거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투를 측정할 때 자기보고식과 또래보고식 중 하나만을 사용할 경우, 결과를 해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기보고식 측정방법과 또래보고식 측정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비교함으로써, 두 도구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측정도구의 상이함에 기인한 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변인은 성별이다. 5, 6학년を対象으로 한 Biggs와 Parker(2001)의 연구, 5-8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er 등(2002)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우정관계 질투를 나타냈고, Parker 등(1999), Roth와 Parker(2001), Roth(2002)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정관계 질투의 경험 및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Walker와 Parker(2001)는 또래보고 질투평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질투평판이 더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모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질투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측정도구를 모두 이용하여 두 도구 모두에서 동시에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밝힌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이다. 그런데 우정관계 질투상황뿐 아니라 연인관계 질투상황에서도 연령을 영향변인으로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그 이유는 질투라는 정서가 특정 연령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연령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령차를 알아보지 않고서 연령차가 없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만약 연령차가 나타난다면, 높은 강도의 질투로 인해 질투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입시기를 선정할 때, 중요한 단서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실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자제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위장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하고(이지은, 1997), 사람들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와 외적으로 표현하는 정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게 되므로(최정윤, 1994), 질투강도뿐 아니라 질투표현에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하고 변화가 심한 극단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청소년기 동안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정서적 억압은 더욱 느슨하게 하는 동시에 융통성있는 통제능력을 발달시켜 정서를 조절해야하는 과업을 이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특징들이 질투표현에도 영향을 미쳐,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있어서 질투의 표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질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기는 변화의 시기로서 신체적, 성적, 인지적 기능에 변화가 있고, 아울러 사회적 욕구의 증진에 따라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며, 대인관계가 변화되며, 다양한 적응적 욕구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갈등과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행동적응에 스트레스가 위험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Phraes, Compas & Howell, 1989). 그리고 구체적인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불안, 우울, 분노 등과 같은 내면적인 문제와 무단결석, 가출, 약물사용, 자살시도 및 자살, 절도, 폭행 등의 외현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Brody, Stoneman, Flor, McCrary, Hasting & Conyers, 1994).

한편 Flett, Blankstein과 Obertinsky(1996)는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서강도에는 차이가 나는데, 정서강도가 클수록 더욱 더 힘들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우정관계 질투상황에서의 질투강도가 청소년의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높은 질투성향을 보이는 경우에 우울증이나 반추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고(Lavallee, Parker, & Walker, 2002), 관계갈등과 폭력 등의 원인이 되며(Hansen, 1991) 또래들로부터 질투심이 높다는 평판을 가진 청소년들은 사회적 부적응과 관계되며(Walker & Parker, 2001), 대인간·대인내 적응과 관계되므로(Carson & Cupach, 2000) 친구에 대한 질투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우정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Parker & Low, 1999) 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와 질투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질투가 가진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의 측면을 언급한 이은봉(2000)의 연구를 청소년의 적응에 적용해서 살펴보면, 질투는 부러움, 시기, 시샘과 같은 은밀하면서도 내적인 감정을 포함할 뿐 아니라 노골적이고 외향적인 경쟁의 감정도 포

함하고 있다. 또한 시기의 감정과는 다른 경쟁의 감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쟁의 감정은 떳떳치 못한 음모와 위계, 술수와 같은 수단들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게다가 질투로 인한 자기비난과 자기경멸의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경쟁보다도 더욱 더 심각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질투에 포함된 부정적인 감정의 측면들은 청소년의 내현적/외현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내면화된 문제인 우울성향은 대인관계의 위축, 권태감, 무력감, 수면 및 식사문제 등이 수반될 수 있고(정옥분, 1998), 예측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으며(Anthony, 1970), 반항, 결석, 가출과 같은 행동장애나 범죄행위로도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무조건 억압하여 표현하지 않게 되면 더욱 더 우울해질 수도 있게 된다(Kopper & Epperson, 1996). 그리고 불안성향은 누구나 가끔씩 경험하는 정서로써 대부분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정이 명확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심리사회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외현화된 문제 중 청소년의 비행은 가출이나 성행위 같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에서부터 강도나 절도,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리고 공격성이란 타인을 의도적으로 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 또는 통제하려는 욕구에 의한 행동으로써, 여기에 신체적, 물리적 상해와 언어적 상해 등이 포함된다(Berkowitz, 1974). 개인에 따라서 질투는 살인, 공격, 증오, 자살, 가정폭력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Adams, 1990), 이성관계상황

에서의 질투는 데이팅 폭력과도 관련된다(Hansen, 1991). 또한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하게 되면 공격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시켜 건전한 또래관계를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Maccoby, 1996). 그런데 Parker 등(2002)은 질투의 표현이 매우 직접적인 공격형태일 경우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지만, 관계적 공격일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적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여성들의 공격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선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행동은 질투수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Salovey & Rodin, 1989), 또래보고식 측정방법이 자기보고식 측정방법보다 더욱 공격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은 공격행동을 보이는데 반해, 질투상황에서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우정관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공격을 하지만 또래나 주변사람들로부터 공격적인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Dellasega & Nixon, 2003). 따라서 남녀를 모두 포함할 경우에 질투수준과 공격성의 관계는 어떤 양상이 될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친구관계에서 유발되는 갈등상황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Asher, Parker & Walker, 1996), 우정관계 질투상황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Katz, Kramer & Gottman, 1992).

이에 본 연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우울과 불안, 비행과 공격행동은 청소년의 적응수준을 잘 표현해 주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질투와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부적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강한 질투를 자주 유발하여 이

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질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우정관계의 긍정적인 기능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질투수준(자기보고와 또래보고)간에는 관련이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성과 학년에 따라 질투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따라 내현적 문제(우울·불안)와 외현적 문제(비행, 공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또래보고 질투수준에 따라 내현적 문제(우울·불안)와 외현적 문제(비행, 공격)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학생이 654명, 여학생이 316명이었다. 중학교 1학년은 320명, 중학교 3학년은 328명, 고등학교 2학년은 322명이었으며, 출생순위에서 맏이와 둘째는 전체의 85%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자기보고 우정관계 질투척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Parker와 Low(1999)가 개발한 우정관계 질투척도(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FJQ)를 본 연구자가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짧은 문장으로 된 27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970)

배경변인	구 분	빈 도(%)
성 별	남학생	654(67.4)
	여학생	316(32.6)
학 년	중 1학년	320(33.0)
	중 3학년	328(33.8)
	고등 2학년	322(33.2)
출생순위	외 동 이	92(9.5)
	만 이	429(44.2)
	둘 째	394(40.7)
	셋째이상	55(5.6)
부	고졸이하	523(56.4)
	대졸	346(35.7)
최종학력	대학원졸	59(6.1)
	고졸이하	645(69.2)
모	대졸	255(26.3)
	대학원졸	32(3.3)
가 족	100만원이하	80(8.2)
	101-300만원	521(53.7)
	301-500만원	228(23.5)
월소득	500만원이상	104(10.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된 11개 문항만을 이용하였다. 원 척도의 27문항중 15문항은 제삼자와 같은 잠재적인 경쟁자를 포함하는 문항들이고, 12문항은 제삼자를 포함하지 않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삼자를 포함하는 질투상황을 연구하였으므로, 15문항을 가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때의 Cronbach α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대상자들의 설문소요시간을 감안하여 4문항을 제외시킨 11문항을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질투를 느낄만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은 자신의 가장 친한 동성친구를 말한다. ‘○○가 보고 싶어하는 콘서트에 있다면, 나는 ○○에게 전화해서 같이 보러가자고 한다. 그런데 ○○는 별

써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반의 다른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보러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나는 ○○에게 생일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준 선물에는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은 우리 반의 다른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로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커트식 5점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질투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α 계수는 .91이었다.

또래보고식 우정관계 질투척도

Walker와 Parker(2001), Parker, Walker와 Gamm(2002)이 사용한 또래보고 질투척도(Peer-Reported Jealousy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질투와 관련된 행동들로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행동과 관련성이 높거나 자주 유사한 행동을 표현하는 또래의 수를 무제한으로 지명하게 하는 사회측정적 행동평가이다. 학급의 친한 친구로부터 받은 평판과 비친구로부터 받은 평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지명하도록 하는 상호성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 때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은 또래보고 평판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상호적인 친구가 한명도 없다고 응답한 설문지는 또래보고 질투평판점수의 최종자료에서 제외되었다. 『같은 반의 친구들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친구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자신의 친구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친구, 자기 친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 만약 당신이 다른 친구와 친해지려하며 질투심을 느낄 것 같은 친구, 만약 당신이 다른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있다면, 질투심을 느낄 것 같은 친구이름을 모두 적으세요.』 또래로부터 질투평판을 받지 않으면 0점을 주고, 1명으로부터 받으면 1점, 두 명으로부터 받으면 2점, 세 명으로부터 받으면 3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정관계 질투평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심리사회적 부적응척도

조미숙(1999)이 사용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Youth Self Report)를 이용하였다. 4개의 하위척도인 우울·불안, 비행행동, 공격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불안 척도(anxious, depressed)는 ‘외롭다고 불평한다, 잘 운다,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한다’ 등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정도를 평가하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행행동 척도(delinquent behavior)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가출한다’ 등 비행행동을 평가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행동척도(aggressive behavior)는 ‘말다툼을 자주 한다, 허풍치고 사랑을 많이 한다,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등 공격성, 싸움, 비행행동 등을 평가하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식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불안의 Cronbach α 계수는 .89이었고, 비행행동의 Cronbach α 계수는 .83, 공격행동의 Cronbach α 계수는 .88이었다.

절 차

본 조사에 앞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질문지 문항의 이해,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대상선정,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질문지를 대구시내 중, 고등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배부 및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970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결 과

질투측정방법간의 상관

질투측정방법(자기보고와 또래보고)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보고측정방법과 또래보고 측정방법은 0.13의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하지만 ±0.2미만의 상관일 경우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여, 본 연구의 상관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성과 학년에 따른 질투수준

성과 학년별 질투수준(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이원변량분석, Scheffe사후 검증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질투수준 모두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기보고 질투수준과 또래보고 질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3학년이 중1학년보다,

표 2. 질투측정방법간의 상관(N=970)

	1. 자기보고	2. 또래보고
1. 자기보고	1.00	
2. 또래보고	.13**	1.00
평균	2.46	1.17
표준편차	0.95	2.10

**p<.01

중1학년이 고2학년보다 자기보고 질투수준이 높았고, 중1학년이 중3학년/고2학년보다 또래보고 질투수준이 높았다.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따라서 심리사회적 부적응(우울·불안, 비행, 공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의 자기보고 질투수준의 집단은 중위수(2.27)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집단(낮은질투집단, 높은질투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면화문제(우울불안)와 외현화문제(비행행동)에서 집단에 따른 차

표 3. 성과 학년별 질투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학년	N	M	SD
남	중1	253	2.31	.81
	중3	225	2.19	.77
	고2	176	1.94	.71
	합	654	2.17	.79
자기 보고	중1	67	3.12	.84
	중3	103	3.28	.97
	고2	146	2.91	.98
	합	316	3.07	.96
전체	중1	320	2.48	.88
	중3	328	2.53	.98
	고2	322	2.38	.97
	합	970	2.46	.95
남	중1	253	1.50	2.33
	중3	225	0.72	1.51
	고2	176	0.60	1.90
	합	654	0.99	2.00
또래 보고	중1	67	2.21	2.57
	중3	103	1.50	1.92
	고2	146	1.27	2.25
	합	316	1.55	2.24
전체	중1	320	1.65	2.40
	중3	328	0.97	1.69
	고2	322	0.90	2.09
	합	970	1.17	2.10

표 4. 성과 학년에 따른 질투수준의 차이

구 분		SS	df	MS	F	Scheffe
질투 수준	자기	180.592	1	180.592	259.640***	
	보고	17.441	2	8.720	12.537***	고2<중1<중3
		성별*학년	2.331	2	1.166	1.676
수준	또래	103.229	1	103.229	24.532***	
	보고	113.819	2	56.909	13.525***	고2/중3<중1
		성별*학년	.406	2	.203	.048

*p<.05, **p<.01, ***p<.001

표 5.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차이

독립변수(N)		종속변수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			
			우울불안		비행행동		공격행동	
			M	F	M	F	M	F
성 남	자기	낮은집단(419)	1.87	12.32***	1.80	1.30	2.09	8.69**
	보고	높은집단(235)	2.08		1.86		2.24	
별 여	자기	낮은집단(78)	2.07	4.32*	1.74	2.42	2.17	11.66**
	보고	높은집단(238)	2.31		1.88		2.47	
학 중1	자기	낮은집단(156)	1.76	15.97***	1.64	2.88	2.03	9.80**
	보고	높은집단(164)	2.11		1.73		2.26	
년 중3	자기	낮은집단(158)	1.98	5.48*	1.80	.37	2.14	7.86**
	보고	높은집단(170)	2.22		1.82		2.36	
고2	자기	낮은집단(183)	1.96	11.08**	1.92	2.58	2.14	16.78***
	보고	높은집단(139)	2.28		2.08		2.48	

*p<.05, **p<.01, ***p<.001

이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즉 자기보고 질투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우울불안,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성과 학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또래보고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

또래보고 질투수준에 따라서 심리사회적 부적응(우울·불안, 비행, 공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의 또래보고 질투수준 집단구분은 중위수(0)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집단(질투없는집단, 질투있는 집

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전혀 또래로부터 지명을 받지 않은 경우가 질투가 없는 집단이 되고, 1명 이상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경우는 질투가 있는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1학년의 경우에만 공격행동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즉 또래보고 질투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성과 학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6. 또래보고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차이

독립변수(N)		종속변수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			
			우울불안		비행행동		공격행동	
			M	F	M	F	M	F
성 남	또래	질투없는집단(425)	1.95		1.85		2.13	
	보고	질투있는집단(229)	1.95	.007	1.77	2.64	2.18	1.31
별 여	또래	질투없는집단(167)	2.27		1.86		2.40	
	보고	질투있는집단(149)	2.23	.03	1.83	.003	2.40	.014
중1	또래	질투없는집단(150)	1.91		1.68		2.07	
	보고	질투있는집단(170)	1.96	.17	1.69	.00	2.22	4.69*
학 중3	또래	질투없는집단(206)	2.08		1.84		2.22	
	보고	질투있는집단(122)	2.14	.29	1.76	1.42	2.30	.55
년 고2	또래	질투없는집단(236)	2.08		1.97		2.27	
	보고	질투있는집단(86)	2.14	.15	2.05	.57	2.32	.04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질투측정방법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방법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관정도가 매우 낮으므로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두 측정방법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힌 Walker와 Parker(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Walker와 Parker(2001)는 두 방법간의 가설적인 관련성을 낮은 상관정도로 예측한 것도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두 측정방법이 질투심이라는 공통된 정서를 측정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질투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또래들로부터의 폭넓은 사회적, 행동적인 측면으로서의 객관적인 평가에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높은 질투심을 느낀다고 밝힌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또래들로부터도 질투심 평판이 높지 않을 수 있고, 질

투심을 자주 표현하는 것으로 또래지명된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자기보고에서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로 흔히 인식하는 질투와 관련된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고백하기를 꺼려하여 낮은 점수를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적인 질투성향을 밝히는데 있어서 자기보고측정방법만을 과잉신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우정관계 질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때, 어떤 측정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밝히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후 많은 질투 연구가 이루어져 질투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관련성을 연구함에 있어 어떠한 측정방법이, 어떤 상황에서 더욱 적절한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성과 학년에 따른 질투수준(자기보고와 또래보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질투수준 모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에 따른 차이

는 질투수준에 따라 차이가 났다. 즉 자기보고 질투수준에서는 중3학년이 중1학년보다 높았고, 중1학년은 고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보고 질투수준에서는 중1학년이 중3학년과 고2학년보다 더욱 높았다. 하지만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자기보고 질투수준을 나타낸다는 Biggs와 Parker(2001), Roth(2002), Parker 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또래보고 질투평판을 나타낸다는 Walker와 Parker(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모두에서 여학생이 더 높은 질투수준을 나타낸다는 배재현(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들에 비하여 정서의 체험강도가 높다는 Kring과 Gordon(1998)의 연구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한 정서강도를 보인다는 Fujita, Diener와 Sandvik(1991)의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만을 단일변수로 하여 그 차이를 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학년에 따라서 성차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좀 더 명확한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성차의 이유는 정서조절 및 표현의 차이, 사회화과정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정서표현과 통제에 있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부정적인 정서들을 표현했을 경우 타인들이 자신을 더욱 이해해주어 고통의 표현이 지지를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식한(Zenman & Garber, 1996) 반면, 남학생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질투를 표현할 경우 계집애처럼 보인다는 놀림을 당하고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외현적인 질투표현을 꺼리기 때문으로(Fagot, 1977) 생각된다. 또한 동성의 우정관계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

들보다 친구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실망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Clark & Ayers, 1993)에서처럼, 질투상황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기존의 우정관계에서 받아왔던 정서적인 유대감, 친밀감을 제삼자와 공유하게 될 뿐 아니라 우정관계 유지에 대한 갈망도 더욱 클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보다 관계지향적인 동기를 가짐으로써 분노조절한다는 연구결과(Timmers, Fischer, & Manstead, 1998)에서 볼 때, 정서사회화에 있어서 성차가 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타인의 정서적 욕구에 더 많은 주의를 하도록 사회화되어, 또래들에 의한 질투평판에서도 질투표현을 많이 하는 친구에게 더 많은 주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또래질투평판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정관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계 상황에서도 갈등은 야기될 수 밖에 없고, 갈등의 극복과정을 통해 그 관계는 보다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질투수준을 가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 및 조절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보고 질투수준에서는 중3학년이 중1학년보다, 중1학년이 고2학년보다 더 높았고, 또래보고 질투수준에서는 중1학년이 중3학년과 고2학년보다 높은 질투평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낮은 강도의 질투를 느끼는 것은 연령증가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우정관계의 어려움도 보다 많이 인식하게 되지만(Parker & Low, 1999), 타인의 정서를 고려하는 능력 또한 발달하기 때문으로(최정윤, 1994; Gnepp & Hess, 1986) 생각된다. 그리고 발달적으로 질투심이 증가하는 시기를 9-10세에서 14-15세로 가정하

Selman(1980)의 연구에서 볼 때, 이 기간을 넘어서면서 질투심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발달상 질투심이 감소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차의 원인을 Selman(1980)은 조망수용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친구가 가진 모든 욕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보다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측면에서 우정관계를 진행시키며, 질투가 유발되지만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상황에서는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해석을 쉽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또래보고 질투수준에서 중3학년이 중1학년보다 더 낮은 질투수준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자기보고 질투수준에서 중3학년이 중1학년보다 더 높은 질투수준을 보인 것은 청소년 초기인 중1학년에 비해 청소년 중기(중학교후반부터 고등학교)인 중3학년이 되면서 정서적 특징이 더욱 강렬해지지만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게 되므로, 또래보고에 비해서 자기보고는 의식적인 억압을 덜 하게 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질투심에 대한 취약성 또한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므로 강한 질투심 및 부적절한 질투표현에 대한 관리를 위한 개입시기는 고등학교 이전의 시기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대략 초경이 시작되는 전후부터 성인기에 접어드는 20세 전후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청소년기를 다루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살펴본 결과, 모든 성별과 학년에서 동일하게 자기보고 질투수준이 높을수록 내현적인 문제(우울, 불안)뿐 아니라 외현적인 문제(공격행동)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투가 우울증상과 같은 내현적인 문제뿐 아니라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밝힌 Parker와 Walker(2003)의 결과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느끼는 정서는 미움, 원망, 죽이고 싶음, 증오, 울고 싶음 등의 정서반응이 수반되고, 그 강도가 심할수록 타인 공격적이라고 밝힌 문용린(1994)의 연구결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억압된 증오심, 분노와 같은 감정상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공격행동을 통하여 분출시키게 된다고 한 윤진(1987)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함으로써, 내적으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심리내적으로 우울 및 불안, 강박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당면한 문제에 회피하거나 고립된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울 및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절하게 정서표현을 하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감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연구(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에서 볼 때,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보고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살펴본 결과, 중1학년의 경우만 외현적인 문제(공격행동)에서 질투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학년과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차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경향이 증가되지만, 앞서 언급한 또래보고 질투수준의 학년

차 중 중1학년이 가장 높은 또래보고 질투수준을 보인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강도에 차이가 있지만, 정서강도가 클수록 더욱 더 힘들어하여 문제중심적 대처인 적응적 대처로 나아가기보다 부적응적 대처에 치중하게 되기 때문으로 (Flett, Blankstein & Obertinsky, 1996) 생각된다. 그리고 질투상황의 책임을 친한 친구에게 둘 경우에 관계적 공격, 수동적 공격, 우정관계 종결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 (Roth, 2002)를 적용해보면, 본 연구의 모든 대상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수용하는 발달과업을 가진 청소년기에 해당되지만, 이 중에서 중1학년은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므로 아직까지 이러한 정서이해 및 표현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조망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직접적인 공격행동을 더욱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또래보고 측정방법이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는데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기보고 측정방법은 성별과 학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중 한 가지인 두 가지 측정도구가 모두 질투연구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같은 변인들에 대한 질투연구는 자기보고 측정방법이 더욱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추측은 또래보고 질투평판의 집단을 구분할 때, 또래로부터 전혀 지명을 받지 않은 집단과 지명을 받은 집단간 빈도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또래지명을 받은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점을 제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우정관계 질투상황은 친한 동성친구와의 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점차 이성교제의 빈도가 증가되는 시기이므로, 동성친구뿐 아니라 이성친구관계 상황에서도 질투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중 20% 정도만이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여, 동성친구일 때와 이성친구일 때를 비교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에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져, 동성친구상황과 이성친구상황에서의 질투수준과 질투표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정관계 질투상황에서 제3자가 자신의 친구관계에 위협이 됨을 인식하게 되면 질투가 유발된다. 하지만 제3자를 위협적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질투가 유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친구에 대한 우정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매우 안정적이라면, 동일한 질투상황이라 할지라도 질투를 느끼는 강도뿐 아니라 질투로 인한 문제행동들도 줄어들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정관계의 질적인 측면과 질투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응답은 교사 감독하에 이루어진 자기보고형이기 때문에 실제의 문제행동보다 더욱 낮은 응답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친한 친구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적인 특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교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기명 보고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질투의 표현에 있어서, 어떤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자주 질투를 경험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투를 서슴없이 나타낸다.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하게 되면 공격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시켜 건전한 또래관계를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Fabes & Eisenberg, 1992; Maccoby, 1996).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보고 질투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우울불안, 공격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이 질투에 있어서도 보다 취약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무리가 있어 추후에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질투에 있어서 보다 취약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투의 감정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적 감정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질투라는 말 자체가 좋은 뜻으로 쓰일 수 없는 용어로 인식한다. 이는 살아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질투의 본성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만든다. 따라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승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으로서의 질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문용린(1994).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 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재현(2006). 청소년의 우정관계 질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재현, 최보가(2006). 남자 청소년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및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6), 87-102.
- 이은봉(2000). 자연적인 감정과 반자연적인 감정, *카톨릭대학교 사목연구*, 8, 124-141.
- 이지은(1997). 아동의 정서표출규칙 사용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87). 폭력의 이론: 공격행동의 심리적 기제,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6, 1-10.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조미숙(1999).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변인 탐색을 통한 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 최정윤(1994).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ams, D. (1990). Identifying the assaultive husband in court: You Be the Judge. *Response*, 13(1), 13-16.
- Anthony, E. J. (1970). The behavior disorders of children. In P. H.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2, 667-764.
- Asher, S. R., Parker, J. G., & Walker, D. L. (1996). Distinguishing friendship from accepta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assess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366-4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kowitz, L. (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 for aggression.

- Psychological Review*, 81, 165-176.
- Biggs, B. K. & Parker, J. G. (2001, April). Adolescent's jealousy and possessiveness of friends: *Social, behavioral, and personal correlates*.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N.
- Brody, G. H., Stoneman, Z., Flor, D. McCrary, C., Hastings, L., & Conyers, O. (1994). Financial resources, par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parent co-caregiving, and early adolescent competence in rural two-parent African-America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590-605.
- Carson, C. L., & Cupach, W. R. (2000). Fueling the flames of the green-eyed monster: The role of ruminative thought in reaction to romantic jealousy.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4, 308-329.
- Clark, M. I., & Ayers, M. (1993). Friendship Expectations Friendship Evaluations: Reciprocity and sex effect. *Youth and Society*, 24, 299-313.
- Dellasega, C., & Nixon, C. (2003). *Girl Wars: 12 strategies that will end female bullying*, New York: Simon & Schuster.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1), 116-128.
- Fagot, B. I. (1977). Consequences of moderate cross-gender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902-907.
- Flett, G. L., Blankstein, K. R., & Obertinsky, M. (1996). Affect intensity, coping styl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0, 221-228.
- Fujita, F., Diener, E., & Sanvik, E. (1991). Gender differences in negative affect and well-being: the case for emotional inten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427-434.
- Gnepp, J. & Hess, D. L.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splay rul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 Hansen, G. L. (1991). Jealousy: It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integration with family stress theory. In P. Salovey(Eds.), *The psychology of jealousy and envy*, 211-230. New York: Guilford Press.
- Katz, L. F., Kramer, L. & Gottman, J. M. (1992). Conflict styles and emotions in marital,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C. Shantz &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86-703.
- Lavallee, K. L., Parker, J. G., & Walker, A. R. (2002). Friendship jealousy, relational aggression and social adjustment: Gender difference and pattern of change and stability over time, paper presented at

-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XV World Meeting Montreal Canada.
- Lucas, A. A. (2004).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s and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jealousy in same-sex female friendships. Michigan State University.
- Maccoby, E. E. (1996). Peer conflict and intrafamily conflict: Are there conceptual bridges?, *Merrill-Palmer Quarterly*, 42, 165-176.
- Parker, J. G., & Low, C. (1999). Defining and assessing children's jealousy over friend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Parker, J. G., Low, C. & Wargo, J. (1999). Children's jealousy over their friends' friends: Personal and relational correlates in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boys and girl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Parker, J. G., & Walker, A. R. (2003). Encouraging Adolescent Social Competence: A Practicum. In J. Cohen and L. Yapa (eds.), *A Blueprint for Public Scholarship at Penn State*. University Park, Pa.: Penn State.
- Parker, J. G., Walker, A. R., & Gamm, B. K. B. (2002). Worlds within worlds: The friendship network context of jealousy and relational aggression. paper and presentation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Ottawa, Canada.
- Parker, J. G., Walker, A. W., Low, C., & Gamm, B. K. (2005). Friendship Jealousy in Young Adolescents: Individual difference and Links to Self-Esteem, Aggression, and Soci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235-250.
- Phares, V., Compas, B. E., & Howell, D. C. (1989). Perspective on child behavior problems: Comparisons of children's self-reports with parent and teacher reports. *Psychological Assessment*, 1, 68-71.
- Quigley, B. M., & Tedeschi, J. T. (1996). Mediating effects of blame attributions on feeling of ang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280-1288.
- Roth, M. A. (2002). Navigating the minefields of social triangles: Adolescents' reaction to their friends'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 125-154). Washington, DC: APA.
- Salovey, P., & Rodin, J. (1989). Envy and jealousy in close relationships. In C. Hendrick(Eds.), *Close relationships*(pp.

- 221-246). Newbury Park, CA: Sage.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Simmons, R. (2002). Odd girl out: The hidden culture of aggression on girls. Harcourt: New York.
- Timmers, M., Fischer, A. H., & Manstead, A. S. R. (1998). Gender differences in motives for regulating emo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74-985.
- Volling, B. L., McElwain, N. L., & Miler, A. L. (2002). Emotion regulation in context: The jealousy complex between young sibling and its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3, 581-600.
- Walker, A. R., & Parker, J. G. (2001). Does jealousy matter?: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correlates of self- and peer-reported friendship jealous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arch, Minneapolis, MN.
- White, G. L., & Mullen, P. E. (1989). Jealousy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1차 원고 접수: 2007. 7. 16
수정 원고 접수: 2007. 8. 8
최종게재결정: 2007. 8. 9

The Relation between Friendship Jealousy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Jae-Hyun Bae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 correlations among self-reported jealousy and peer-reported jealousy (2) the sex and grade differences in friendship jealousy(self-reported and peer-reported jealousy) (3) the jealousy level(self-reported and peer-reported jealousy) in psycho-social maladjustment. To test this purpose, 970 students(7th, 9th, 11th grades: male 654, female 316)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about brief scenario(about friendship jealousy). Correlation analysis, Two-Way ANOVA and MANOVA were used to test the dat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lf-reported jealousy level and peer-reported jealousy level. Secondly, self-reported and peer-reported jealousy level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ex and grade. Thirdly, self-reported jealousy level was different according to internalizing problem(anxious/depressed), externalizing problem(aggressive behavior). Finally, Peer-reported jealousy level was different according to externalizing problem(aggressive behavior) in 7th. More discussion about these results and further research ideas were suggested.

Key Words : friendship jealousy, psycho-social maladjustment